

전남

순천시 자전거 도로 100억 투입

2012년까지 순천만~낙안읍성~주암호 연결

행안부, 자전거거점도시 선정 ... 시범마을 운영

순천시가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100억원을 투입해 자전거 명품도시로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문화를 확산 시키기 위해 순천 등 자전거 수요가 많은 전국 10개 도시를 선정, 1000억원을 투입해 자전거 거점 도시로 육성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산업단지(해룡 임대산단·순천산업단지·주암단지 등)와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고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과 낙안읍성, 상사호·주암호와 연계한 생태·관광형 자전거도로도 조성된다.

또 도심에 관통하는 동천 인근 자전거도로를 활용,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관광지를 운영하는 공영버스에 자전거 캐리어를 설치하거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추진된다.

순천 해룡산단에는 국내 최초 마그네슘 자전거생산공장이 들어선 것도

순천시의 경우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100억원을 투입, 낙안·송광면 일대에 자전거 시범마을을 운영하고 자전거도로와 주차장 등 자전거 인프라를 설치하는 한편 공공자전거 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전거 명품 도시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이같은 자전거 이용 기반을 갖추면서 오는 2013년 열리는 '순천 정밀박람회'를 계기로 자전거 생태도시로 도약시킨다는 복안이다.

행안부는 이와 더불어 도시의 교통안전 체질개선, 자전거 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도 돕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이 실제 주민 생활 속에 뿌리내리도록 하면서 자전거 명품도시 육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농촌일손 돕기 양파수확

전남도 농업기술원 직원 100여 명은 지난 9일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에서 양파수확 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농촌일손돕기는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적기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직원 100여 명은 지난 9일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에서 양파수확 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농촌일손돕기는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적기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조선소 앞바다 목포항 항계 편입

입·출항신고 불편 해소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삼열)은 목포항 진입구 인근에 건설·운영 중인 해남 화원 일반산업단지(대한조선소) 전면 수역이 목포항 항계(港界)에 편입됐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대한조선소가 목포항 항계 밖에 위치하고 있어 항계로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입·출항신고 업무 및 세관관련 업무처리시 불편함이 많았다. 또 대한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신조 선박이나 수리 선박의 시운전을 위해 목포항 항계 안으로의 입·출항과 항계내 정박시 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목포 항만청은 이러한 불편사항 해

소를 위해 대한조선소 전면해역을 목포항 항계에 포함되도록 하는 항계확장을 추진, 지난 1일 항만법시행령 개정·공포로 대한조선소 전면해역이

목포항 항계에 편입되게 됐다.

김삼열 목포 항만청장은 "이번 해남 대한조선소 앞바다의 목포항 항계 편입에 따라 대한조선소를 이용하는 내·외항 선박의 편익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성선기자 sslee@



K-water 전남본부 헌관

K-water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최홍규)는 지난 9일 광주시 서구 차평동에 신사옥을 마련하고 헌관식을 가졌다.

K-water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최홍규)는 지난 9일 광주시 서구 차평동에 신사옥을 마련하고 헌관식을 가졌다.

화상 경마장 반대 결의안

순천시의회

순천시의회는 10일 한국마사회가 추진중인 순천 마권 장외경마소(화상 경마장) 설치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순천시의회는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도박장이 나타나면 화상경마장 설치의 시인으로서 반하는 행위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며 "4년전 지역민의 반대로 화상 경마장 승인을 취소했던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재승인한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마사회도 밀어붙이기식 구시대적 발상을 접고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순천시·도의원들도 이날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반대로 철회된 화상경마장 사업을 재승인한 것은 독선행정"이라며 "다음주 중 마사회와 농식품부를 항의방문해 책임을 물겠다"고 주장했다.

순천 화상경마장은 지난 2006년 마사회가 순천 시내 덕암동에 개장하려다 시민들의 반대로 사업 승인이 취소됐으나 지난 4월 마사회 측의 요구로 농식품부가 사업을 재승인하면서 순천시는 물론 순천과 여수, 광양, 경남 진주 등 인근 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설치 반대 천막농성에 나선다는 등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화상경마장이 들어설 건물주는 이달 개장을 목표로 내부공사를 강행,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

민선 5기 이것이 현안이다

함평군

농축산물 통합 브랜드 육성

민선 5기 출범을 앞두고 함평군의 가장 시급한 지역현안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통합'이다. 나비축제로 인해 전국적인 명성은 알렸으나 군민들 피부에 다가오는 실질적인 소득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매년 인구감소와 지역 상권침체가 계속돼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난 4·5월 함평 엑스포공원에서 열린 '제12회 함평 나비축제' 현장.

함평군 인구는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4만5000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말 기준 인구가 3만7000여명에 불과해 매년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1000여명씩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자립도 역시 현재 10~11% 내외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가 줄다 보니 문을

앞으로 통합브랜드를 친환경 청정이미지와 접목해 대다수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여건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함평은 전국에서 고령화 지수가 높은 지역으로 전체 군민의 28.8%가 65세 이상 노인인구

부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교육예산을 조금씩 더 늘려 장기적인 교육정책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병호 함평군수 당선자는 "함평의 여러 현안들 중 '지역경제 살리기'를 국정 제1의 목표로 삼겠다"며 "갈등과 반목을 털어버리고 군민이 함평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실감나도록 군민의 편에서 일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살사는 함평건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당선자는 "선거를 치르면서 발생했던 모든 갈등과 반목을 털어버리고 하나가 돼 함평군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건설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기본 토대를 만들자"며 "분열과 편 가르기를 지양하고 통합을 통해 행복한 함평을 만들어 그것을 기반 바탕으로 부자군민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나비축제' 전국적 명성 군민 소득으로 연결

교육환경 개선·노인복지 서비스 확대 시급

닫는 상가들이 늘고, 기업들도 경제사정이 밝지 않아 투자를 꺼리고 자연 세수(稅收)마저 줄어들어 재정이 열악해 지는 것이 함평의 현실이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 통합 브랜드 육성·개발 역시 주요 현안이다. 함평군은 군민의 70%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군이다. 나비축제가 최초로 친환경 청정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는만큼 농축산물을 통합 브랜드인 '함평천지'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이에 맞춰 단순 수급형 복지가 아닌 노인일자리 창출로 경제활동 제한여건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노인 복지서비스가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함평은 인구유입정책의 하나로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명문고 육성과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교육문제도 인력 학생들이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며, 함평의 미래인 아이들이 맘 편히 공

진도 접도에 '해상 펜션 뉴시터' 준공



5인기준 주말 12만원

감성동 포인트로 손꼽히는 진도군 접도에 바다 위에서 펜션 생활하면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해상 펜션'이 선보인다.

진도군은 어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의 일환으로 군비 3억원을 투입, 7.5평 규모의 동명해 펜션 3동으로 구성된 '해상펜션 뉴시터' 준공식을 12일 개최한다.

해상 펜션은 유료 낚시터와 샤워실·냉장고·에어컨은 물론 상수도 시설까지 있어 일반 펜션과 비교해 전

혀 손색이 없어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접도 어촌체험마을 해상펜션은 갖바위나 방파제·섬 부둣마도 뒤 일련하고 비용도 적게 소요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낚시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접도 어촌체험마을 해상 펜션에 입주할 때는 반드시 구멍뚫음을 착용해야 하며, 임대료는 5인 기준으로 금·토·일 12만원, 주중은 10만원이다.

문의 061-544-4450.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대인동심일부동산
(FAX)223-1772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아리울공인중개사
(063)583-7788
▶펜션건물(투자,지역,임대)
▶투자용 펜션 용지
▶투자용 전원주택 용지

아담공인중개사
010-3616-8698
내대지
▶사구 쉼터동 호매가 3.3㎡당 160만원.
▶광안신 선암동 호매대 3.458㎡ 3.3㎡당 100만원.

GG경매컨설팅(주)
공인중개사: 강영희
(062)364-8700
▶아파트
▶상가주택
▶부동산
▶주택
▶지역별/빌라/다세대/오피스텔